

## 남성해운

하이퐁 항로 항차수 증편

2007년 하반기부터 하이퐁 서비스를 시작한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현재의 주 1항차를 주 3항차로 확대 서비스를 실시했다.

자사의 IHS (INCHON-HAIPHONG SERVICE) 항로와 동아해운의 하이퐁 항로인 HPS 1 과 HPS 2 노선간 선복 교환을 통하여 부산 뿐만 아니라, 울산, 광양 기점에서도 하이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남성해운은 이 항로에서의 서비스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통운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대한통운 이원태 사장이 2010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지난 12월 9일 수상했다.

이원태 사장은 38년 간 항공, 운송, 제조,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산업발

전과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7년 간의 법정관리를 마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통운의 CEO를 맡아 새로운 비전인 '뉴(NEW) 대한통운'을 선정,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으로 경제성장과 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물류중심국가라는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항만물류 활성화와 내륙복합물류 강화 등에 주력함으로써 국가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물류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

다. 한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언론인연합회가 매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 매년 12월에 시상하며, 올해로 10 회째를 맞고 있다.

## 대한해운

박재민 신규사장 선임

대한해운그룹(회장 이진방)은 2011년 1월 1일부로 신규 사장 선임을 포함한 그룹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대한해운그룹은 대한해운 박재민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으며, 조윤형 상무와 김철봉 상무는 각각 전무로 승진됐다.

이에 대한해운은 유례없는 "벌크선부문 실적악화로 장기간 영업적자를 겪어왔으나 향후 영업전략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의 안정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박재민 영업총괄 부사장과 조윤형 벌크선영업본부장, 김철봉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진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 ▶ 2011년 대한해운그룹 정기 승진자 명단

#### ◇ 대한해운

- 사장 박재민
- 전무 조윤형, 김철봉
- 부장 이훈용, 이동정, 설정호

#### ◇ KLC에스엠

- 상무 송성규
- 이사대우 김문옥, 박임구, 김태형
- 부장 안봉주, 조용운

#### ◇ 코리코엔터프라이스

- 부장 장민호

#### ◇ 대한FA시스템

- 부장 이혁진

## SK해운

### 글로벌비와 20년 COA계약 체결

SK해운(대표 황규호)이 25만DWT급 VLOC 투입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20년간 철광석 4,400만톤 수송을 수송하게 된다.

SK해운과 글로벌비와의 철광석 장기운송계약(COA) 및 현대중공업과의 신조선 건조계약의 서명식이 3개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월15일 SK해운 본사에서 개최됐다.

SK해운은 이번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2012년 하반기부터 20년간 현대제철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 총 4,400만톤을 호주 및 브라질로부터 평택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계약에 전용선으로 투입될 25만 DWT의 초대형 광탄선 1척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게 된다.

SK해운은 지난 10월 12일 실시되었던 글로벌비의 철광석 운송선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하여 SK해운은 처음으로 초대형 광탄선을 이용한 원료도입에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주는 상당한 규모의 운송 원가를 절감하여 생산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화주와 국내 선사, 그리고 국내 조선사가 대량화물의 운송 및 선박건조를 모두 담당하여 관련업계의 Win-Win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보호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 STX팬오션

### 그룹 통합 기업 포털 시스템 구축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지난 12월 6일 그룹 통합 기업 포털(Enterprise Portal) 'ONE-STX'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식 개통하였다.

STX팬오션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One-STX'를 통해 STX팬오션 임직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신된 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결재할 수 있다.

또한 타 계열사 시스템에 별도의 인증 없이 연결이 가능하고, 검색을 통해 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와 연관된 임직원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상대방의 접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메신저(IM; Instant Messenger)를 통해 대화하거나 다자간 화상회의 및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웃룩(Outlook)을 기반으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지원해 업무연락을 확인 후 즉각 회신할 수 있어 공백없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체계를 도입해 온라인 상에서의 전자문서 승인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한 통합 승인 체계를 구축했으며, 그룹 표준의 결재 방식을 통해 계열사간 결재업무가 가능해져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STX팬오션은 앞으로 창조적인 기업 문화 형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은 무엇보다 STX팬오션이 속한 STX그룹의 계열사간 긴밀한 협업체계 및 지식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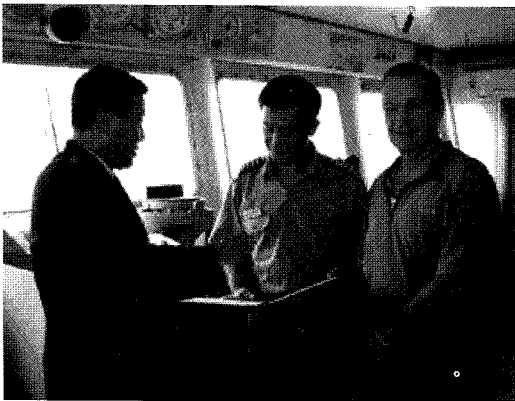
STX팬오션은 그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한 ED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nterprise Document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그룹 공통 인프라를 통해 타 계열사의 유관 사업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고받게 됨은 물론 향후 합작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P 도입을 담당한 정도식 STX팬오션 경영기획

팀장은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그룹 내 자체 메신저와 실시간 존재확인, 커뮤니티 활성화, 표준화된 결제 시스템 구축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 혁신 작업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티피씨코리아 호주 근해 조난자 구조



티피씨코리아(대표 정신중) 소속 선박의 선장이 호주 근해를 항해하던 도중 악천후로 조난당한 호주인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선박의 선장은 티피씨코리아 소속 1만6000t급 원목운반선인 'TPC 오클랜드호'의 이병곤씨이다.

이 같은 선행으로 인해 이병곤 선장은 해양경찰청이 최근 제정한 '용감한 바다시민상'을 처음으로 시상하게 됐다.

이병곤 선장은 지난 12월 4일 RCC(구조조정본부)로부터 호주 동방 490마일 해상에서 조난당한 소형 요트 'NOW OR NEVER호'를 구조해줄 것을 요청받은 직후 선원 20명과 함께 120마일을 달려가 강풍과 악천후속에서 호주인 마틴 웨스턴 패터슨씨(Martin Western Paterson · 58)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이병곤 선장은 돛이 찢겨져 예인이 불가능한 요트에 대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침몰시키는 등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사후조치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난현장에서 조난자를 인도할 호주 근해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의 거리가 무려 303마일에 달해 난감한 상황에서 조난자의 의견을 존중해 자신의 선박을 이용, 인천항까지 동행하는 박애정신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패터슨씨는 이병곤 선장에게 “구조를 위해 일부러 항로를 이탈해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회사측이나 선장에게 더 이상 손실을 끼칠 수는 없는만큼 한국까지 동승한뒤 비행기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이병곤 선장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 호주 망망대해에서 조난자를 구조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수색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이미지까지 한껏 드높였다”며 용감한 바다시민상 첫 수상자로 뽑은 이유를 밝혔다.

## 한진해운

사랑의 밀가루로 연말 나눔 실현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밀가루 기부를 통해 따뜻한 겨울 사랑 나누기에 앞장선다.

지난 12월 7일 오전 부산 한진해운 신항만에서 진행된 이번 밀가루 기부행사에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참석하여, 서울·부산지역 보육원 및 사회복지기관 50곳에 밀가루 총 3.5톤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에 쓰인 밀가루는 한진해운이 루마니아 현지법인 농장에서 수확한 밀을 가지고 재분한 밀가루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 신항에 도착하여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한진해운은 2007년 글로벌 지점장 미팅 주제토론에서 신사업/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북남미 유럽에서 비워진 채로 돌아오는 컨테이너를 활용, 접목시킬 수 있는 영농사업 전개를 도출하였으며, 2009년부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인근 지역에서 밀 농사를 시작하여 2010년 8월 첫 수확을 거둔 것이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은 전달식에서 “신규영농사업의 첫 수확물이 좋은 일에 이용될 수 있어 기쁘고, 항상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같은 날 한진해운 본사 식당에서는 루마니아산 밀가루로 만든 삼색 수제비가 임직원에게 제공되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맛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번 밀가루 수확량 일부를 지난 9월 파키스탄 홍수 재해 구호품으로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아이티 대지진 참사 구호물품을 무상 운송한 바 있다.

또한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은 세계 해운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43위에 올랐다.

영국시간으로 12월 14일 오전 세계적인 해운산업 전문 일간지인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는 '로이드리스트 Top 100 2010' 을 통해 (Lloyd's List ONE HUNDRED 2010)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창간 276주년째를 맞는 로이드리스트에서 선정한 이번 '로이드리스트 Top 100 2010' 은 창간 이래 처음으로 시도됐으며, 전세계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마켓 지식, 성과, 평판 및 리더십 등을 종합 평가, 로이드리스트 편집부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로이드리스트는 “한진해운 대표이사이자 TSA 아시아선사 수장으로서 유럽, 미국 중심인 해운업계, 협의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아시아 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를 조성한 업적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해운환경 가운데에서도 올 초 TSA 신임의장으로 선임되어 세계 주요선사들이 해운경기 침체를 딛고 재도약 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특히, 태평양 노선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함께 미주 / 아시아 지역의 주요 화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 현대상선

### 유럽화물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주요 화주를 초청해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화물에 대해 시행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16일 연지동 사옥 강당에서 국내 주요 화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 및 수

출/수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다.

이같은 사전신고제도는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선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를 조기 제출해야 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 와 수출/수입업자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현대상선은 올해 초부터 유럽 사전신고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국의 사전신고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업자들이 차질 없이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흥아해운

49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흥아해운(대표 이윤재)은 지난 12월 8일 서울 문정동 본사 강당에서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은 이날 창립기념사에서 "창립 50주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으며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수송사업 발굴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상, 모범사원상, 최우수해상직원상, 우수해상직원상 및 사내 교육프로그램인 HR 아카데미 성적우수상, 코리아헤럴드참여상 등을 부상과 함께 해당 직원들에게 시상했다.

## 보험연수원

### 해상보험전문과 과정 수료식 개최

보험연수원(원장 김치중), 부산시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제1기 해상보험 글로벌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이 지난 12월 3일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은 김치중 보험연수원장과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장, 김형양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총 2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해상보험 글로벌전문가 양성과정'은 부산시가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해상보험 분야의 연수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부산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손해보험사 해상보험 관계자, 선주상호보험(P&I)·한국해운조합 보험관련 업무담당자, 한국해운조합·한국선주협회·한국무역협회 회원사, 항만운영업체 담당자 등으로 교육비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연수원이 각각 35%, 기업이 30% 부담하여 운영된다. 이번 1기 과정은 지난 6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및 격주 토요일에 한국해양대에서 실시됐다.

교육과정은 선박구조, 해상보험, 선박금융 등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사진이 Case Study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해양대의 실습선 승선과 시뮬레이션 체험 등으로 현장감 있는 실무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보험연수원 김치중 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부산지역 내 글로벌 인재육성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시, 한국해양대와 함께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업계 전문가 집단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수료자들이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현재단

### '희망의 벽' 제작 지원

양현재단(대표 최은영) 후원으로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희망의 벽'이 지난 2월 26일 충남대 병원 이후 두 번째로 고양시에 위치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에 자리하게 되었다.

명지병원은 12월 15일 '희망의 벽' 제막식을 열고 환아와 보호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다.

'희망의 벽'은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완쾌 의지를 북돋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현재단의 작품 제작비 후원과 강익중 작가의 작품 기증으로 이뤄졌다.

'희망의 벽'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꿈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긴 3.3인치의 작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벽화로 탄생하는 설치 미술작품이다. 이번 희망의 벽은 명지병원 1층 로비에 가로 11.5m 세로 2.75m 크기로 설치됐다.

또한 양현재단은 제작 후원뿐 아니라 지난 10월 26일 최은영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직접

희망의 벽 제작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그림을 오리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도 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양현재단 최은영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벽이라는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느끼고 공감하며, 마음 속에 더 큰 꿈과 희망, 사랑으로 되살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후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현재단은 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로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소아암을 비롯한 환아들을 위한 양현 무료미술치료교실 운영, 난치병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IVI(국제백신연구소) 후원 등 의료지원 활동과 해운·물류분야 연구지원 및 장학사업, 양현미술상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국제관 장치등록업체 28개사 선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해외참가국 장치공사를 담당할 국제관 장치업체 28개사를 지난 12월 6일 발표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는 해외 100여 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 중 50개국은 참가자가 국가관을 설계하고 장치공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업체로 선정된 장치업체들은 이들 외국 국가관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조직위는 이들 28개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박람회 참가가이드 책자에 게재해 참가국들이 쉽게 업체들을 선택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장치업체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으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단일 건으로 5억원 이상의 실

적을 갖춘 회사들이다.

조직위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수엑스포의 전시연출 방향, 참가국 주제개발 가이드, 국제관 건물구조, 전시관설치를 위한 승인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에 앞서 조직위는 개발도상국 공동관 전시연출 사업자로 대서양관 - (주)SK마케팅앤컴퍼니, 태평양관 - (주)아키훈, 인도양관은 - (주)올리브컴퓨터내셔널사를 선정하 바 있다.

대전엑스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전남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 울산항만공사

고등학생 대상 안보교육 실시

울산항만공사(UPA) 이채익 사장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울산컴퓨터과학고 3학년 학생 150여명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통일부 통일교육 위원이기도한 이채익 사장은 분단과 통일문제, 6.25와 북한의 도발사태, 북한의 사회, 통일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하여 약 40여 분간 학생들이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연평도 사건 등 안보과 관련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진행된 오늘 교육은 참석한 학생들 모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안보교육을 마친 뒤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10대 실천과제에 관해 학생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

이채익 사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군과 국가의 대응능력을 믿고 개개인의 안보관 및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이번 강의가 학생들의 안보의식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천항만공사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인천항만공사(대표 김종태)가 12월 1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대상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개최된 교육에 대해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 대상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바람직한 조직내 문화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사로는 여성부 양성평등 위촉 전문 강사인 강민정씨가 맡았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 및 성매매 교육 △조직의 남녀 차이와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에 대해 집중강의 했다.

## 케이엘넷

박정천사장 항만경제인 대상 수상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지난 12월 13일 박정천 대표이사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국제물류포럼에서 한국항만경제학회로부터 물류 및 항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부문 한국항만경제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케이엘넷에 따르면 박정천 사장은 그간 케이엘넷이 수출입물류관련 주체간의 신속·정확한 물

류 정보공유를 실현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PLISM : Port Logistics’ Integrated System for Maritime Business)’을 통해 기존의 수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던 물류정보 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시간낭비,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한 오류를 제거해 선박의 업무처리시간을 13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전했다.

또한 서틀비용 40% 감소, 위험화물 부두 반입률 100% 차단 등 항만물류관련 업단체의 업무 생산력 증대 및 비용절감을 실현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항만경제학회는 대학에서 해운항만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5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항만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각 1명씩을 선정해 항만경제인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 한국선급

무료급식 나눔행사 실시

(사)한국선급(회장 오공균) “사랑나눔 봉사단”의 끊임없는 이웃사랑이 훈훈한 온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선급 봉사단원 15명으로 구성된 무료급식 자원봉사단은 지난 12월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 및 독거노인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나눔행사(밥퍼행사)를 가졌다.

사랑나눔 봉사단 총괄단장인 한국선급 함정엽 무팀 전총호 팀장은 “연로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밝히며, “참가자 모두 정규 업무를 마친 후 개인 시간을 희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하다, 향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한국선급은 국내 유학 외국인 대학생 장학금 지급, 도서지역 자매결연 학교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대표 이상조)은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번 청렴도 측정은 8월부터 11월 까지 전국 7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번 컨공단은 종합청렴도 9.05점(외부청렴도 9.04점, 내부청렴도 9.06점)을 획득하여 전체기관(평균 8.44점) 대비 높은 청렴도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컨공단은 “윤리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및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교육 등 기업내 반부패·청렴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해기사협회

해양대 대학생 장학금 지급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흥기)는 1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해양계 재학생 및 협회 회원 장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미래 해운주역이 될 예비해기사를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계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해기사협회 회원자녀 장학생 등 총 14명(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 각 3명, 부산해사고 및 인천해사고 각 2명, 회원 자녀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해기사협회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해기사와 해양사상 보급을 위해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했다.

한편, 금년부터 신설된 ‘해기사협회 회원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에게 지급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하이 CEO물류포럼 개최

12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이 우리나라 해운·물류, 금융업계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장강물류시장 활용방안’을 주제로 상하이 CEO 물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KMI는 중국의 장강 간선 화물운송량은 2009년 13.3억 톤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내륙수로로 부상한 장강지역 물류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이 포럼에서는 장강유역 물류시장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난장, 우한, 충칭, 청두 지역 물류시장에 관한 정보와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한·중 물류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KMI는 “해운, 항만, 국제물류 등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진출을 통한 신국부 창출할 수 있다

특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국해운조합

2010년 10대 뉴스 선정

지난 12월 24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2010년도 조합 10대뉴스’를 발표했다.

해운조합은 ‘제13대 박홍진 회장 및 제19대 대의원, 제18대 이인수 이사장 등 신임 임대의원 취임’을 2010년도 최고 뉴스로 선정했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조합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제13대 박홍진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이사 및 대의원, 제18대 이인수 이사장 취임을 통해 조합이 한단계 도약하여 연안해운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위로는 도로로 수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오염, 교통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한 성과가 꼽혔으며, 내항상선 총도입규모를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부원선원 송입국가를 기존 미얀마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총도입규모 및 송입국가 확대를 3위로 평가했다. 4위로는 한국해운조합-굿네이버스, 사회공헌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업을 정하고 소외아동 문화체험 지원, 자원봉사활동,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꼽았다.

이와 함께 ▲ KSA Hull·P&I 1천여척 계약갱신 및 가입척수 지속증가 ▲ 선원자녀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체험행사 실시 등 선원자녀 대상 사회보장 기능 강화 ▲ 연안여객선이용객 8년 연속 천만명 돌파 ▲ 미래전략추진단 신설, 사업본부 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직제개편 단행 ▲ 싸이월드 미니홈피 ‘가보고 싶은 섬’, 레저·스포츠

분야 3월중 1위 랭크 ▲ KSA 수상레저공제 상품 개발 등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한국해운조합은 “뉴스의 상징성과 해운환경에 미친 영향, 조직 역량강화 및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조합원사 및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 10대뉴스를 최종 선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2011년에도 연안해운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안해운 대표단체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디지털경영체제 출범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디지털 경영체제 출범 선언 및 ERP시스템 구축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ERP시스템인 ‘e-KOEM’ 구축은 지난2009년 12월 14일에 시작되어 선진 경영기법 도입,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가진 업무프로세스 구성과 정보화 환경 조성, 정보의 일관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을 목표로 약 1년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총 7개 부문 87개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구축된 ‘e-KOEM’은 향후 업무의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과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주요업무 정보의 적절한 제공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용우 이사장은 “ERP 구축은 단순한 정보기술의 접목이 아닌 공단의 체질 강화전략”임을 강조하면서 공단 전 임직원들에게 ERP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경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